2014 국가직 9급(S책형) 국어 정답 및 해설

- 남부고시학원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 -

카페 :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(cafe.daum.net/jwskorean)

(2014. 4. 19. 해설)

<정답 및 해설> (S책형)

1.	2.	3.	4.	5.	6.	7.	8.	9.	10.
②	④	②	①	②	①	①	①	③	④
11.	12.	13.	14.	15.	16.	17.	18.	19.	20.
③	④	②	①	④	②	③	③	④	②

1. [정답] ②[표준어. 난이도 下]
[풀이] '윗돈'이 아니라 '웃돈'이 표준어이다. 위, 아래의 구별이 없을 때는 '웃-'으로 표기해야 한다. 예를 들어, '웃돈, 웃어른, 웃비, 웃옷' 등이 있다.

2. [정답] ④[한글맞춤법. 난이도 下]
[풀이] '설레이다'는 무조건 틀리고, '설레다'가 항상 맞다. 따라서 '설레이는, 설레이고, 설레여서, 설레였다, 설레임' 등은 모두 틀리고, '설레는, 설레고, 설레어서, 설레었다, 설렘' 등이 모두 맞다.

3. [정답] ②[띄어쓰기. 난이도 中]
[풀이] '세대 간'으로 띄어 써야 한다. 이때 '간(間)'은 '관계'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. 참고로, '부자간, 형제간, 남매간, 자매간' 등의 '가족, 3음절'로 된 '간(間)'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.

4. [정답] ①[로마자표기법. 난이도 下]
[풀이] '왕십리'의 로마자 표기는 [왕심니]로 발음되므로 'Wangsimni'로 표기해야 한다.

5. [정답] ②[어법. 난이도 中]
[풀이] <보기>는 '간접 높임법의 잘못된 사용'에 해당하는 예이다. '면담이 계시다'가 아니라 '면담이 있으시다'로 고쳐야 한다. ②번 역시 '햄버거 나오셨습니다.'라고 햄버거를 높이는 경우이므로 '햄버거 나왔습니다.'로 고쳐야 한다.
[오답]
① : '서울역전 앞'에서 중복된 표현이 사용되었다.
③ : '과장님께서 외부에 나가셨습니다.'라고 높여야 한다.
④ : '선생님께서는 볼일이 있어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.'로 고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.

6. [정답] ①[한자성어. 난이도 上]

[풀이] '논공행상(論功行賞)'은 '공적의 크고 작음 따위를 논의하여 그에 알맞은 상을 줌'의 의미이므로 '벌하였다'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. '황제는 다시 후한 논공행상(論功行賞)을 통해, 그동안 고락을 함께해 온 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.'의 형태로 문장이 바뀌어야 한다.
[오답]
② 초근목피(草根木皮) :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라는 뜻으로,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③ 반포지효(反哺之孝) :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(孝)라는 뜻으로,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.
④ 각고면려(刻苦勉勵) :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,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.

7. [정답] ①[어휘. 난이도 中]
[풀이] ①번 '군식구'의 '군-'은 '가외로 더한, 덧붙은'의 뜻에 해당한다. 예를 들어, '군사람'이 있다. 하지만 나머지 '군말, 군살, 군기침'은 '쓸데없는'의 뜻을 더하는 '군-'이므로 의미가 다르다.

8. [정답] ①[품사. 난이도 上]
[풀이] '수 관형사와 수사'를 구별하는 문제이다. '다섯 권'의 '다섯'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. 띄어 썼고, 조사가 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. 참고로, '다섯이, 다섯을, 다섯이다'의 형태로 사용되는 '다섯'은 조사와 결합하는 수사이다.

9. [정답] ③[설명 방식. 난이도 下]
[풀이] <보기>의 설명 방식은 예시이다.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여러 가지 들어 설명하고 있다.
[오답]
① : 정의. ② : 비유 또는 대조. ④ : 비교.

10. [정답] ④ [개요 작성. 난이도 中]
[풀이] ㉣에는 Ⅱ-2.의 '라'를 고려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. 즉, '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'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여 '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관리 및 감시' 등과 같은 사회적 노력으로 고쳐야 한다.

11. [정답] ①[글의 순서. 난이도 中]
[풀이] 두괄식 구성의 글이다. 'ㄷ'은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일반적 진술이므로 맨 앞에 와야 하고, 상반된 내용인 'ㄱ'과 'ㄹ'이 나란히 나와야 하며, 두 내용을 정리한 'ㅁ', 역접이며 전체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'ㄴ'의 순서대로 나와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'ㄷ-ㄱ-ㄹ-ㅁ-ㄴ'의 순서이다.

12. [정답] ④[비문학 일치. 난이도 中]
[풀이] 한국 건축의 특징에 대한 글이다. 한국 건축은 '사이'의 개념을 중요시하며, 자연과의 대화를 늘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다. 하지만 '자연 환경'과 '인공 조형물'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.

13. [정답] ②[고전문학. 난이도 上]
[풀이] <보기>는 '망양정에서 본 파도'를 소재로 한 장면이다. ㉡은 '가뜩이나 노한 고래와 같은 파도'로 해석되며, 성난 파도가 출렁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.
[오답]

① : 하늘의 끝. ③ : 흰 물결. ④ : 물보라(포말).

14. [정답] ①[용언의 종류. 난이도 上]
[풀이] '본용언과 보조용언'의 결합이냐, '본용언과 본용언'의 결합이냐를 묻고 있다. ①번의 '들고 가셨다'는 실질적인 의미 두 개가 결합된 경우이다. 따라서 '가셨다'는 본용언이 된다.
[오답]
나머지 경우들은 모두 '나가다, 자다, 먹다' 뒤에 보조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이므로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.

15. [정답] ④[비문학 일치. 난이도 中]
[풀이] '원(院)'은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다. 따라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다. 따라서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.

16. [정답] ②[비문학 서술 방식. 난이도 中]
[풀이] '역사적 사례'를 들거나, '상대의 미묘한 심리를 언급'한 것은 없다. 『도덕경』을 인용하며, 모반을 일으킨 황소를 질책하고 있다.

17. [정답] ③[어휘. 난이도 上]
[풀이] '길섶'은 '길의 가장자리'이며, 흔히 풀이 나 있는 곳을 가리킨다. 참고로, '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'은 '고샅'에 해당한다.

18. [정답] ③[현대문학. 난이도 中]
[풀이] <보기>의 시에서는 사물을 의인화하지 않았다. 모닥불을 쪼이는 개나 강아지가 나올 뿐 의인화한 것은 아니다. 맨 마지막에 나온 '슬픈 역사'는 사물을 의인화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통해 '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, 수난의 역사'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.

19. [정답] ④[비문학 일치. 난이도 中]
[풀이] <보기>는 '가격을 올리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'에 대한 글이다. ④번에서 언급한 '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발표 내용'은 어디에도 없다. ④번은 'TV나 인터넷, 신문 등의 매체에 따라 발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'를 말하는데, 글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.

20. [정답] ②[현대문학. 난이도 下]
[풀이] '그 녀석'에 대한 성격을 외모와 말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. '짧게 깎은 앞머리, 서슬이 선 눈매, 앞니에 두 개의 금니, 끝이 뾰족한 구두'와 거친 말투 등을 통해 그가 고압적이고 매서운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.